

스텔스 베스트셀러 분석 자료 목록

선정도서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2026년 9월

목 차

I. 선정도서 정보

1. 도서 기본 정보	7
1) 선정도서	7
2) 줄거리 요약	7
3) 메인 카피	8
4) 추천사 목록	8
5) 도서 분야	8
6) 온라인 서점 판매 페이지	9
7) 주요 성과	9
8) 순위 추이 분석(2026년 9월 1일 기준 집계)	11
9) 판매 동향별 핵심 지표(예스24 일간 베스트셀러 기준)	12
10) 서점 큐레이션 지표(2026년 8월 28일 기준)	13
11)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 그래프	13
12) 선정도서 관련 검색어의 웹 검색량 분석	17
13) 인플루언서 추천	20
14) 소셜 미디어 해시태그 분석(2026년 9월 1일 기준)	20
15) 원서의 아마존 재팬 판매 지표(2026년 9월 2일 기준)	21
16) 국내 리뷰 분석 통계	23
17) 국내 리뷰 내용 분석	24
18) 도서관 대출 동향 및 지표	31
19) 오프라인 서점 재고량(2026년 9월 3일 기준)	33
2. 저자 정보	37
1) 저자명: 오가와 사야카(小川さやか)	37
2) 출생: 1978년(48세)	37
3) 국적: 일본	37
4) 직업: 문화인류학자	37
5) 이력	37
6) 소개	37
7) 특이 사항	37
8) 주요 저서 및 논문	38
9) 국내 이전 출간 도서	39
10) 이전 도서 관련 보도 자료 목록	40
3. 출판사 마케팅 활동	41
1) 갈라파고스 공식 X: 독자 서평단 모집, 표지 시안 공개 및 편집자 추천	41
2) 갈라파고스 공식 X: 알라딘 ‘눈에 띄는 새 책’·‘MD의 선택’ 선정 홍보	41
3) 갈라파고스 공식 인스타그램: 인문교양 대상 2위·팔로워 3천 명 기념 이벤트	41
4) 갈라파고스 공식 X: 미니 키링 이벤트	42

5) 갈라파고스 공식 X: 인스피아 소개 글 재확산	42
6) 갈라파고스, 2026 서울국제도서전 첫 참가 및 부스 운영	43
4. 출판사 정보	44
1) 출판사 출간 현황	44

표 목 차

<표 1>	선정도서 추천사 목록	8
<표 2>	서점별 판매 지표 요약(2026년 8월 31일 조회 기준)	9
<표 3>	온라인 서점 채널별 핵심 지표	11
<표 4>	예스24 일간 베스트셀러 기준 판매 동향 국면 구분	12
<표 5>	서점 큐레이션 현황	13
<표 6>	Amazon.co.jp 원서 판매 순위	21
<표 7>	일본 온라인 서점별 교차 검증	22
<표 8>	일본 원서 판매 연표	22
<표 9>	국내 리뷰의 유형별·국면별 분포	23
<표 10>	리뷰 핵심어 ‘검사검사’의 확산 단계	23
<표 11>	책 목차 표현이 기사·리뷰로 전이된 사례	24
<표 12>	예스24 회원 리뷰 요약	26
<표 13>	알라딘 리뷰 개요	27
<표 14>	알라딘 독자 주요 인용 문구	27
<표 15>	교보문고 독자 리뷰 분석 개요	30
<표 16>	교보문고 리뷰 발생 시기 분포	30
<표 17>	교보문고 독자 반응 키워드	30
<표 18>	교보문고 독자의 부정적 반응 유형	31
<표 19>	선정도서 월별 대출 건수	32
<표 20>	다대출 그룹	32
<표 21>	선정도서와 함께 대출된 도서	33
<표 22>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별 재고 현황	33
<표 23>	갈라파고스 마케팅 활동 연표	43
<표 24>	서점 큐레이션에 대응한 출판사 마케팅 활동	43

그림 목차

[그림 1]	선정도서 표지	7
[그림 2]	알라딘 ‘편집장의 선택’ 본문 캡처	10
[그림 3]	교보문고 ‘MD의 한마디’	10
[그림 4]	교보문고 월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	13
[그림 5]	알라딘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	14
[그림 6]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2025년)	14
[그림 7]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2026년)	15
[그림 8]	예스24 사회 정치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2025년)	15
[그림 9]	예스24 사회 정치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2026년)	16
[그림 10]	2026 교보문고 인문교양 대상 2위 선정 전후 순위 변화	16
[그림 11]	베스트셀러 순위 변동 추이 통합 그래프(2025. 6.~2026. 8.)	17
[그림 12]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설정값	17
[그림 13]	네이버 데이터랩 ‘중경삼림’ 일간 검색량 추이(2025. 1. 1.~2026. 8. 31.)	18
[그림 14]	네이버 데이터랩 월평균 검색량 비교(2025. 1.~2026. 8.)	18
[그림 15]	구글 트렌드 월별 검색량 추이(2019. 12.~2026. 8.)	19
[그림 16]	구글 트렌드 시간대별 검색량 추이	19
[그림 17]	박시영 디자이너 추천 영상 캡처	20
[그림 18]	Amazon.co.jp 별점 분포	21
[그림 19]	예스24 평균 별점 및 별점 분포	24
[그림 20]	알라딘 평점 분포	26
[그림 21]	선정도서 도서관 대출 추이	31
[그림 22]	전국 도서관 제공 주요 키워드	32
[그림 23]	교보문고 광화문점 재고 현황	35
[그림 24]	교보문고 강남점 재고 현황	35
[그림 25]	교보문고 영등포점 재고 현황	35
[그림 26]	교보문고 이화여대점 재고 현황	35
[그림 27]	교보문고 대구점 재고 현황	35
[그림 28]	알라딘 오프라인 서점 재고 페이지 (1)	35
[그림 29]	알라딘 오프라인 서점 재고 페이지 (2)	35
[그림 30]	예스24 구의점 재고 현황	36
[그림 31]	예스24 강서NC점 재고 현황	36
[그림 32]	채널예스 신간 소개 기사 「그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다」 (2017. 9. 6.)	39
[그림 33]	알라딘 구매자 성별 분포	39
[그림 34]	사전 서평단 모집 및 표지 시안 게시물	41
[그림 35]	알라딘 ‘눈에 띄는 새 책’ 및 ‘MD의 선택’ 페이지	41

[그림 36]	갈라파고스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	42
[그림 37]	갈라파고스 공식 X 이벤트 게시물.....	42
[그림 38]	갈라파고스 주제 분류별 주요 출간 도서 비율.....	44
[그림 39]	갈라파고스 통합 판매량 상위 도서 목록.....	44

I. 선정도서 정보

1. 도서 기본 정보

1) 선정도서



[그림 1] 선정도서 표지

- (1) 도서명: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기존의 호혜, 증여, 분배 이론을 뒤흔드는 불확실성의 인류학』
- (2) 저자: 오가와 사야카 지음, 지비원 옮김
- (3) 출판사: 갈라파고스
- (4) 출간일: 2025년 6월 20일
- (5) 분야: 인문교양
- (6) 정가: 18,500원
- (7) ISBN: 9791193482124
- (8) 형태: 296쪽, 130×195×22mm, 385g

2) 줄거리 요약

일본의 문화인류학자인 저자가 홍콩의 거대한 복합 건물 ‘청킹맨션’을 무대로, 그곳에서 활동하는 탄자니아 출신 상인들의 비공식 경제와 삶을 참여 관찰한 논픽션이다. 저자는 자타가 ‘청킹맨션의 보스’라 부르는 카라마를 중심으로, 사기와 배신이 난무하는 홍콩의 지하 상거래 네트워크를 깊숙이 파고든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 상인들이 잦은 배신 탓에 “세상 누구도 믿어선 안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무엇이든 나누는 독특한 ‘공생의 사회(커먼즈)’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신뢰나 공식적인 제도에 전혀 기대지 않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공존해 나가는지를 보여 주며,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인류학적 통찰을 제시한다.

3) 메인 카피

- (1) 헤드 카피: “일본 논픽션계의 아쿠타가와상, 나오키상이라 불리는 오야 소이치 논픽션상과 명성 높은 가와이 하야오 학예상을 동시 수상하여 큰 화제를 부른 인류학 명저!”
- (2) 서브 카피: “세상의 어떤 인간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오히려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믿지 않아도 연결되는 사회’를 향한 인류학적 상상!”

4) 추천사 목록

<표 1> 선정도서 추천사 목록

추천인	소속·직함	게재 매체	추천사
힌디디	『커먼즈란 무엇인가』 저자	—	일단 무지막지게 재밌다. 책의 배경인 청킹맨션부터가 수상쩍은 매력으로 가득하다. (...) 그들이 실천하는 커먼즈는 삶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삶을 ‘여행’하기 위한 자유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에게 커먼즈와 공유경제(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상상하고 실천하는 세계로의 매력적인 여행을 제공한다.
다케다 사테쓰	논픽션 작가	아사히신문	전체상이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일이, 대충 흘러가는데도, 힘차다.
스가 게이지로	비교문학자	주간독서인	이런 인류학이 있구나, 하고 눈을 뜨게 되었다. 훌륭한 책이다. 저자는 ‘누군가의 변덕 덕에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분배경제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고 말한다. 그 유토피아는 확실히 이 차갑고 냉담하고 즐겁지 않은 현대 일본 사회의 대척점이다.
호시노 히로미	논픽션 작가	니혼게이지신문	그들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고안해낸 구조는 우리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 ‘적절히 적당하기’ 때문에 멋지다. 괜히 힘이 솟아나는 책이다.
사카이 도요타카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교수	요미우리신문	카라마와 그의 동료들은 일본에서도 진행 중인 ‘개인의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고용이 유동화된 시대의 비즈니스맨의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구레 료타	작가, 서점 경영자	AREA	인간의 신용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유경제’보다, 기술과 경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더 행복한 미래를 느끼게 한다.

5) 도서 분야

- (1) 핵심 키워드: 사회학·인류학, 커먼즈, 공유경제, 홍콩, 탄자니아, 비공식 경제

(2) 온라인 서점별 분야

(가) 예스24

-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수상 내역 및 미디어 추천 분류

- 국내도서 > 미디어 추천 > 조선일보
- 국내도서 > 미디어 추천 > 한겨레

(나) 알라딘

- 국내도서 > 인문학 > 인류학/고고학 > 인류학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다) 교보문고

- 국내도서 > 인문 > 인문학일반 > 인문교양
- 국내도서 > 역사/문화 > 역사일반 > 인류학
- 수상 내역 및 미디어 추천 분류
 - 주요 일간지 소개 도서 > 경향신문 > 2025년 6월 3주 선정
 - 주요 일간지 소개 도서 > 문화일보 > 2025년 6월 3주 선정
 - 주요 일간지 소개 도서 > 조선일보 > 2025년 6월 3주 선정
 - 주요 일간지 소개 도서 > 한겨레신문 > 2025년 6월 4주 선정

6) 온라인 서점 판매 페이지

- (1) 예스24: <https://zrr.kr/dDRoHc>
- (2)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6841689>
- (3) 알라딘: <https://zrr.kr/tQMxFq>
- (4) 영풍문고: <https://www.yepbooks.co.kr/books/202506160765906400>
- (5) 쿠팡: <https://zrr.kr/Imto4Y>

7) 주요 성과

<표 2> 서점별 판매 지표 요약(2026년 8월 31일 조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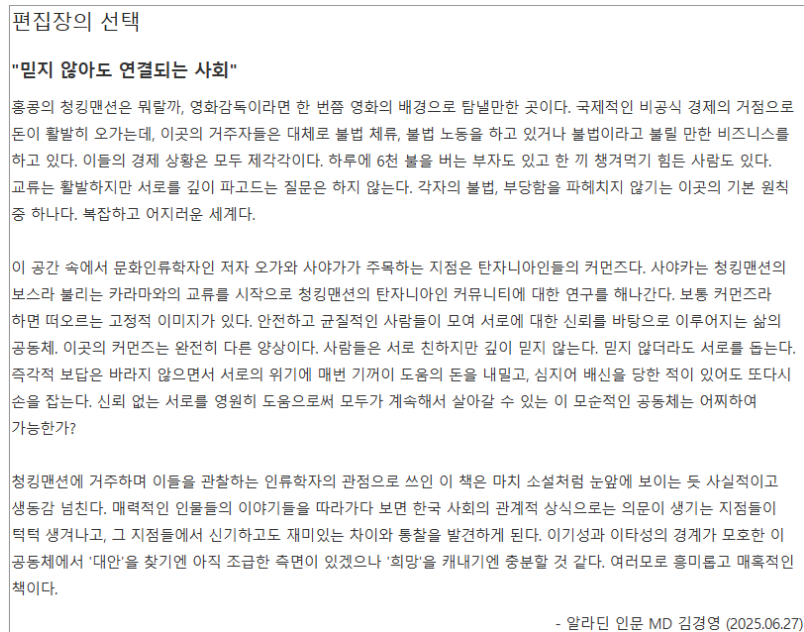
항목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판매지수	11,288	6,453(최고 28,000)	
순위	사회과학 주간 82위	59위(사회 정치)	75위(인문 분야)
누적 상위권 기록	종합 TOP 100 3주	사회 정치 TOP 100 13주	538위(2026-07-21)
			538위(2026-08-31)
			인문 77위
최고 순위 (전 기간)	사회과학 주간 5위 (2025-06-4주~07-1주)	사회 정치 일간 12위 (2025-06-21)	월간 종합 240위 (2026-07)
독자 평점	9.0(100자평 16건, 리뷰 20건)	9.1(리뷰 11건, 한줄평 3건)	9.9(리뷰 67건)
쇄차	1판 5쇄(2026년 7월 27일 발행) ※ 2026년 8월 27일 기준		
원서	2019년 일본 출간, 17쇄		

(1) 알라딘 ‘나도 서점 주인’ 이정신의 서점 추천 도서 선정

출처: <https://www.aladin.co.kr/mybookshop/curator.aspx?id=24>

(2) 알라딘 ‘눈에 띄는 새 책’ 및 인문 분야 ‘MD의 선택’ 선정(2025년 6월 21일)

(3) 알라딘 ‘편집장의 선택’(인문 MD 김경영) 선정(2025년 6월 27일)



[그림 2] 알라딘 ‘편집장의 선택’ 본문 캡처

(4) 교보문고 ‘오늘의 선택’ 및 ‘MD의 선택’ 선정(2025년 7월 1일)

(5) 알라딘 기획전 ‘송길영의 서재’ 선정(2025년 9월 23일)

출처: [https://www.aladin.co.kr/events/wevent.aspx?](https://www.aladin.co.kr/events/wevent.aspx?EventId=295499&srsltid=AfmBOoqEOMMMtC7pwT1dJ5TJKp0VxGzENrE7Q3wnV0w9eBHFwAeC5MG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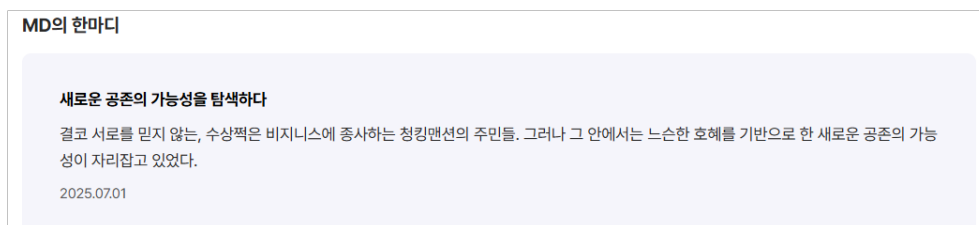
EventId=295499&srsltid=AfmBOoqEOMMMtC7pwT1dJ5TJKp0VxGzENrE7Q3wnV0w9eBHFwAeC5MGJ

(6) 2026년 한국출판문화상 ‘올해의 번역서’(총 10종) 선정(2025년 12월 8일)

(7) 2026 교보문고 인문교양 대상 2위 선정(2026년 7월 13일)

출처: <https://event.kyobobook.co.kr/make/247642>

(8) 2026 교보문고 인문교양 대상 1~3위 도서 패키지 상품 판매 중



[그림 3] 교보문고 ‘MD의 한마디’

(9) 최고 순위 기록(2025년 6월 20일~2026년 8월 30일 전수 집계)

(가)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5위(2025-06-4주, 2025-07-1주)

(나) 알라딘 종합 주간 42위(2025-07-1주)

- (다) 예스24 사회 정치 일간 12위(2025-06-21)
 (라) 교보문고 월간 종합 240위(2026-07)
 (마) 알라딘 사회과학 16위(2026-08-3주), 예스24 14위(2026-08-17)
 (10)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70위, 종합 TOP 100 3주
 (11)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82위, 예스24 사회 정치 59위, 교보문고 인문 75위·주간 베스트 국내도서 538위(2026-08-31)
 (12)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63위(2026-09-02)
(13) 판매지수
 (가) 알라딘 세일즈포인트: 11,288(2026-08-31) → 11,960(2026-09-02)
 (나) 예스24 판매지수: 6,375(2026-08-28) → 6,453(2026-08-31)
 (다) 예스24 최고 판매지수: 28,000
 (14) 제51회 오야 소이치 논픽션상 및 제8회 가와이 하야오 학예상 동시 수상(2020년)^{1,2}

8) 순위 추이 분석(2026년 9월 1일 기준 집계)

※ 11)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 그래프’(pp. 13-16) 참조.

(1) 자료 개요

- (가) 집계 기간: 2025년 6월 20일~2026년 8월 30일
 (나) 자료 출처: 교보문고 월간 종합, 알라딘 주간(사회과학·종합), 예스24 일간(사회 정치)

(다) 채널별 핵심 지표

<표 3> 온라인 서점 채널별 핵심 지표

채널	집계 단위	관측 회차	진입 회차	진입률	최고 순위	평균 순위 (진입일 기준)
예스24 사회 정치	일간 TOP 100	437	82	18.8%	12	53.2
알라딘 사회과 학	주간 TOP 1000	62	59	95.2%	5	143.7
알라딘 종합	주간 TOP 1000	66	17	25.8%	42	504.8
교보문고 종합	월간 TOP 1000	14	1	7.1%	240	240.0

(라) 자료 해석상 유의점

- ① 알라딘 주간 베스트셀러 파일의 [세일즈포인트] 항목은 62개 주차 파일 모두에 동일한 값 (11,288)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파일을 일괄 내려받은 시점의 현재값이 모든 파일에 반

1) 가와이 하야오 학예상은 일본의 저명한 임상심리학자이자 융 심리학의 선구자인 가와이 하야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제정된 상이다.

영된 결과로, 각 주치의 판매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알라딘 자료 중 순위 항목만 시계열 분석에 사용하였다.

② 서점 상품 페이지의 순위 배지는 조회 시점의 현재 순위이며 주 단위로 갱신된다. 본 자료에서 현재값을 인용한 경우에는 모두 조회일을 병기하였다.

9) 판매 동향별 핵심 지표(예스24 일간 베스트셀러 기준)

<표 4> 예스24 일간 베스트셀러 기준 판매 동향 국면 구분

국면	기간	설명
1기 · 출간 스파이크	2025-06-20~2025-08 중순	출간 직후 최고 성적. 예스24 최고 12위, 알라딘 사회과학 최고 5위
2기 · 롱테일 침체	2025-08 하순~2026-06	예스24 TOP 100 진입 월 1~4일로 산발적, 알라딘 사회과학 200~700위대
3기 · 2차 반등	2026-07 중순~현재	예스24 진입률 회복(7월 42% → 8월 70%), 알라딘 사회과학 16~18위 재진입

해당 도서는 2026년 9월 1일 현재 국내 온라인 서점 가운데 알라딘에서 높은 판매 지표를 보이고 있다. 출간 직후에는 예스24와 알라딘에서 신간 효과와 온라인 서점 MD의 큐레이션에 힘입어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구간 도서가 되면서 판매지수가 하락했으나, 2026 교보문고 인문교양 대상 후보 선정과 2위 수상이 2026년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판매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표 전 6개월(2026-01-13~07-12) 동안 예스24 일간 TOP 100 진입은 181일 중 7일(3.9%)에 그쳤고, 2·3·4월에는 진입일이 한 번도 없었다. 발표 후(07-13~08-30)에는 49일 중 33일(67.3%)로 회복했다.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순위도 발표 직전 주 409위에서 8주 만에 16위(2026-08-3주)까지 상승했으며, 평균 순위는 발표 전 259위에서 발표 후 36위로 올라섰다. 교보문고 월간 종합 TOP 1000에는 13개월 동안 한 번도 들지 못하다가 2026년 7월 240위로 처음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이 반등이 교보문고뿐 아니라 알라딘과 예스24에서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보문고 자체 시상임에도 다른 서점에서 같은 시점에 반응이 나타난 것은, 시상 효과가 자사 판촉을 넘어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 수요로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2) 오야 소이치 논픽션상은 평론가 오야 소이치를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문예춘추 계열의 일본문학진흥회가 주최하며 한 해 가장 뛰어난 논픽션 작품을 선정한다. 같은 단체가 나오키상과 아쿠타가와상도 주관한다는 점에서 이 상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970년부터 시상해 온 일본 논픽션 분야의 최고 권위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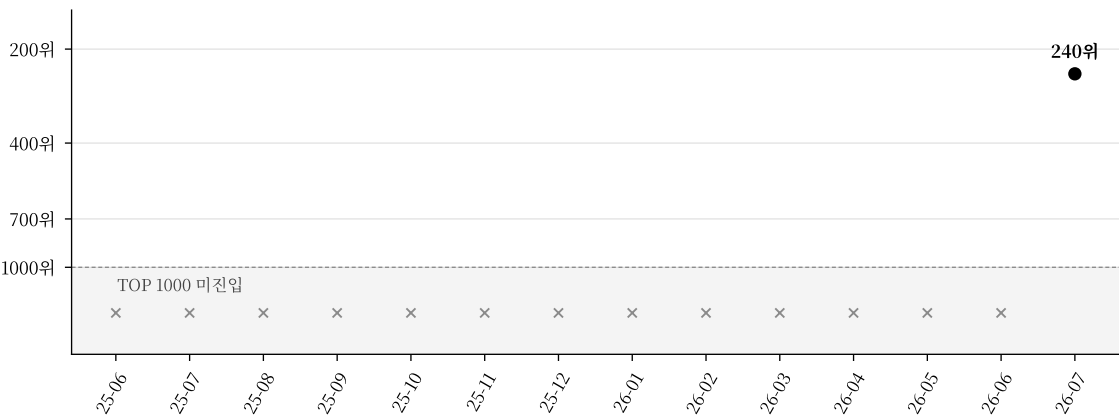
10) 서점 큐레이션 지표(2026년 8월 28일 기준)

<표 5> 서점 큐레이션 현황

서점명	선정 내용	일자	링크
이후복스	공식 Facebook 추천 게시물	2025-12-05	https://www.facebook.com/now.after.who/posts/1447075617418664/
진주문고	7월 서점원 추천 신간	2025-07	https://jinjumoongo.com/pbbs/shop/item.php?it_id=1760084853
스틸복스	8월 큐레이션 도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2025-08-06~07	https://www.instagram.com/p/DNDH-UcTl7p/?img_index=1
개똥이네책 놀이터	독서 모임 ‘독내책방’의 이번 책 선정(공식 Threads 게시물)	2026-02-10	https://www.threads.com/@book338_0478/post/DUmLPydkSPF/
알라딘 ‘나 도 서점 주인’ 이정신 의 서점	추천 도서 10권 중 1권으로 선정	2026-04(페이지 공개)	https://www.aladin.co.kr/mybookshop/curator.aspx?id=24
초콜릿책방	공식 Facebook 추천 게시물(독서 모임)	2026-08-20~22	https://zrr.kr/7s5e5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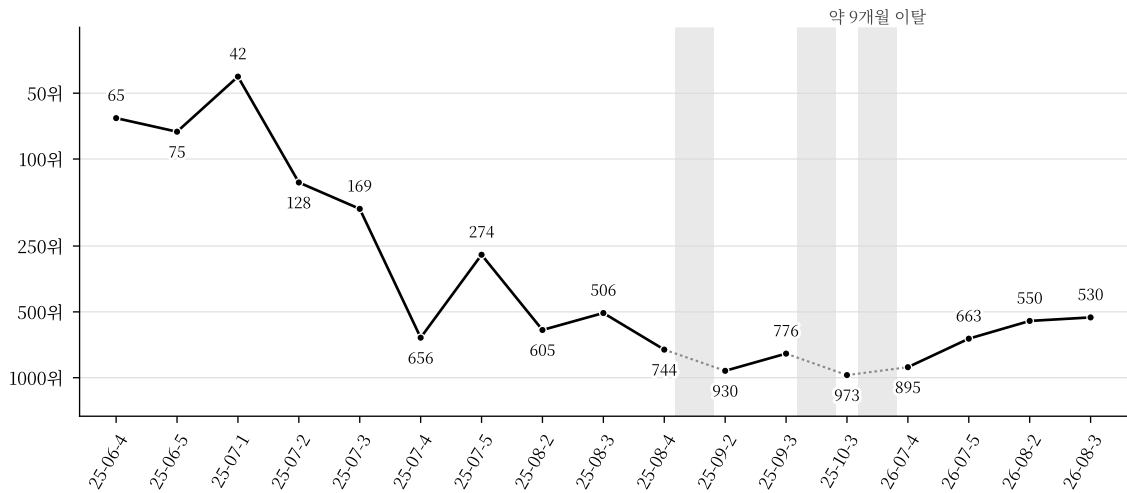
아울러 온라인 서점의 큐레이션 외에 지역 서점(책방)의 큐레이션도 입소문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1)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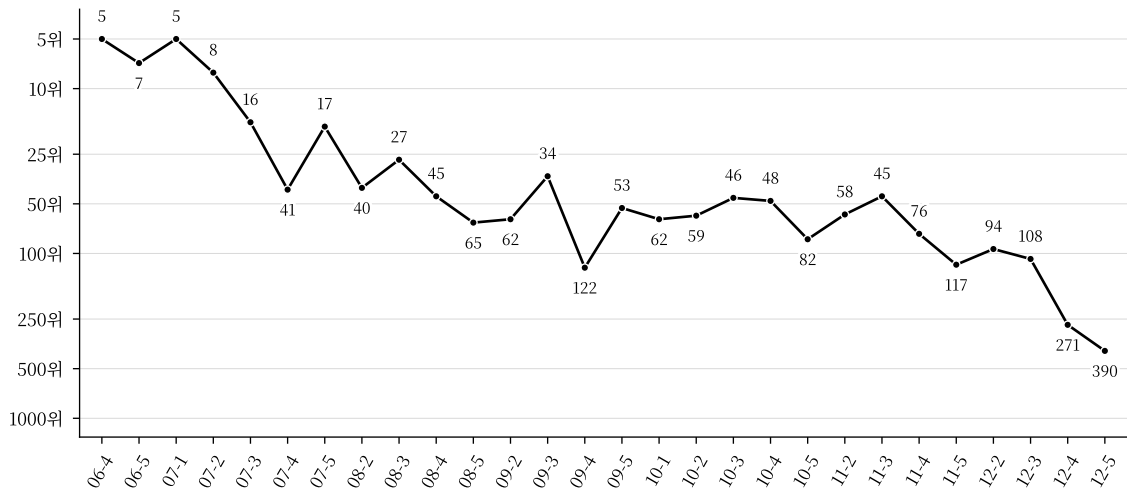
[그림 4] 교보문고 월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

주: TOP 1000 기준. 14개월 중 1개월만 진입했으며, × 표시는 미진입 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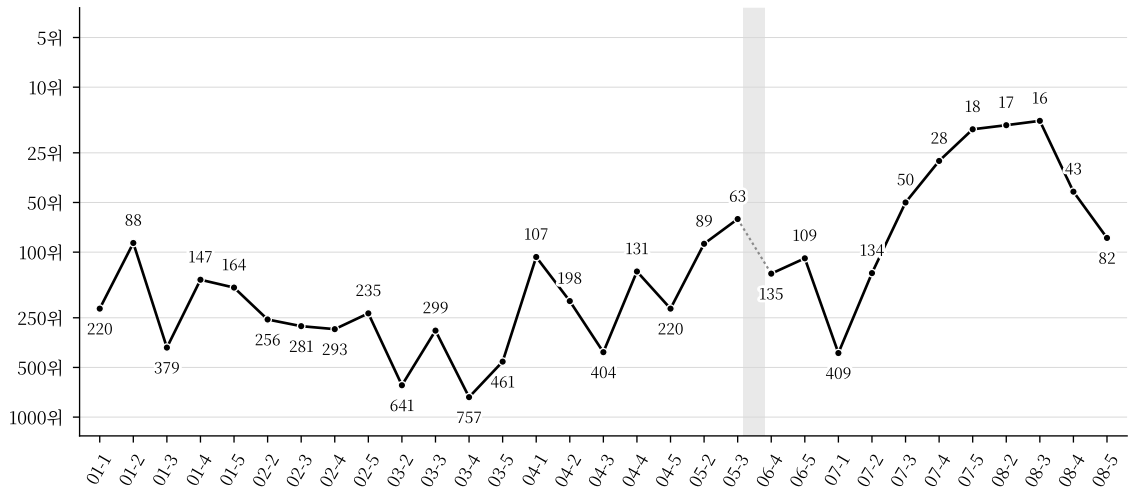
[그림 5] 알라딘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

주: 전 분야 TOP 1000 기준. 66개 주차 중 진입한 17개 주차만 표시했으며, 음영은 리스트 이탈 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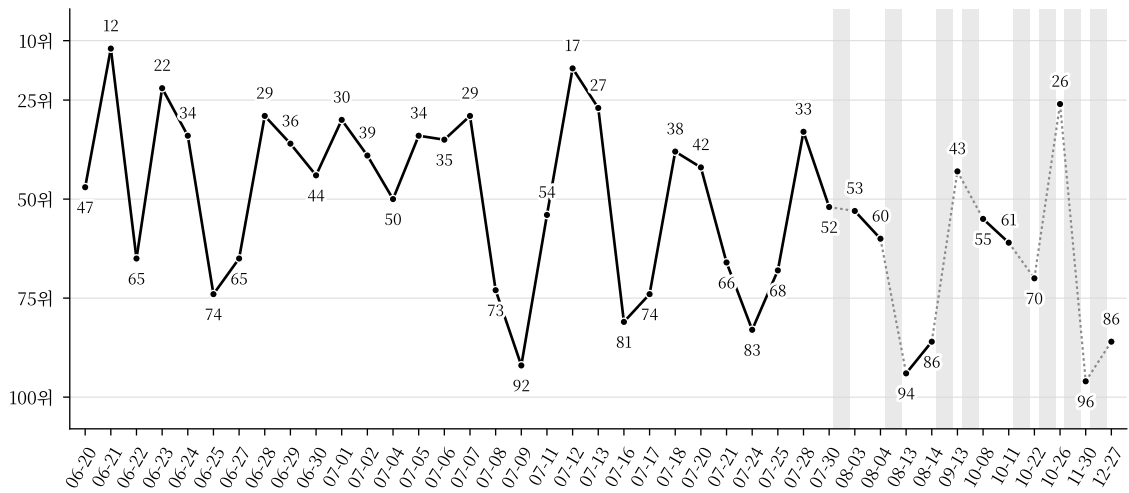
[그림 6]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2025년)

주: TOP 1000 기준, 28개 주차. 세로축은 로그 눈금이며 위쪽이 상위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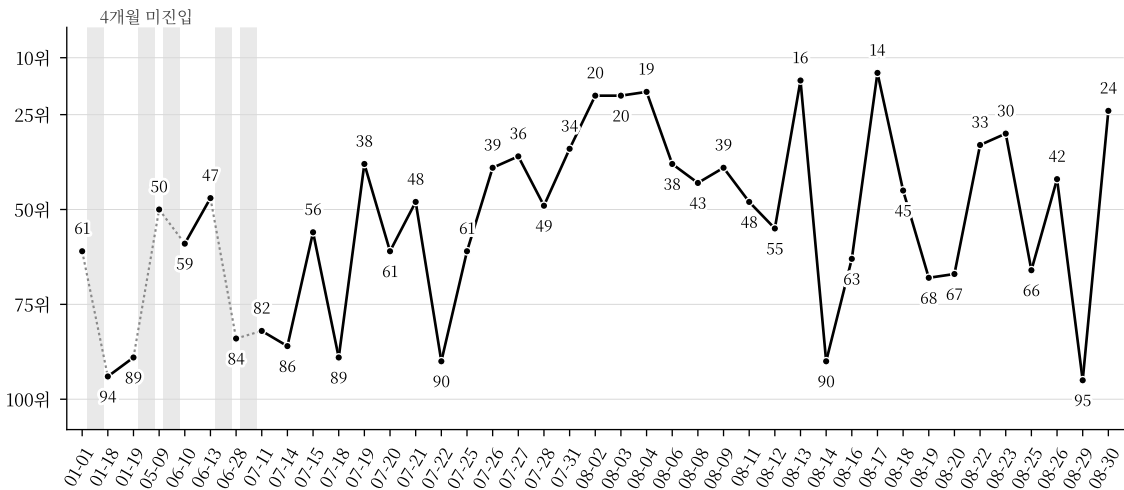
[그림 7]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2026년)

주: TOP 1000 기준, 31개 주차. 세로축은 로그 눈금이며 위쪽이 상위권이다. 음영은 리스트 이탈 구간이다.



[그림 8] 예스24 사회 정치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2025년)

주: TOP 100 기준. 진입한 41일만 표시했으며, 음영은 3일 이상 미진입 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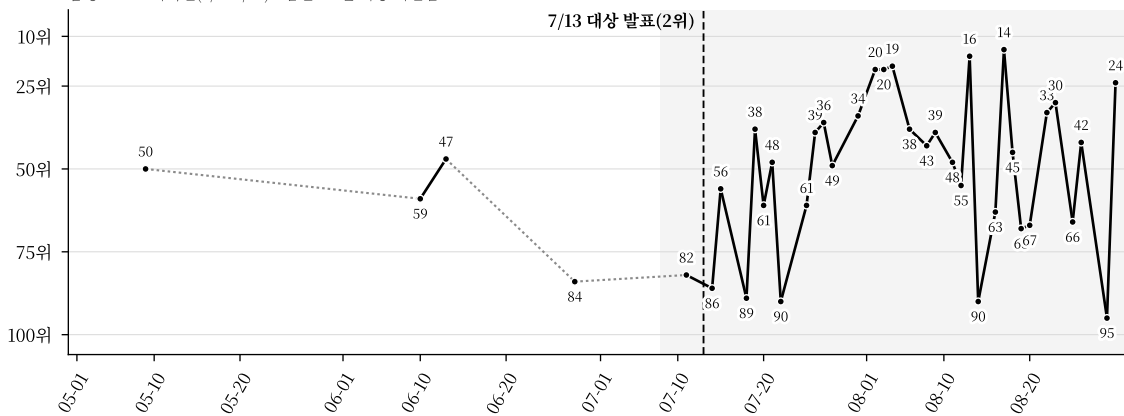


[그림 9] 예스24 사회 정치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2026년)

주: TOP 100 기준. 진입한 41일만 표시했으며, 음영은 3일 이상 미진입 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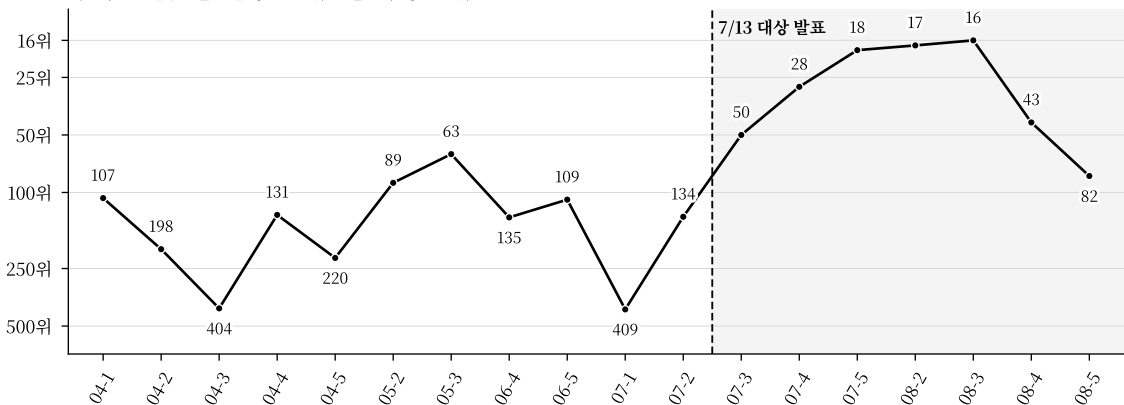
① 예스24 사회 정치 일간 순위(TOP 100)

표시된 점만 TOP 100 진입일 · 발표 전 181일 중 7일(4%) → 발표 후 49일 중 33일(67%)
음영 = 교보 기획전(7/8~8/31) · 점선 = 3일 이상 미진입



② 알라딘 사회과학 주간 순위(TOP 1000)

세로축 로그 눈금 · 발표 전 평균 259위 → 발표 후 평균 3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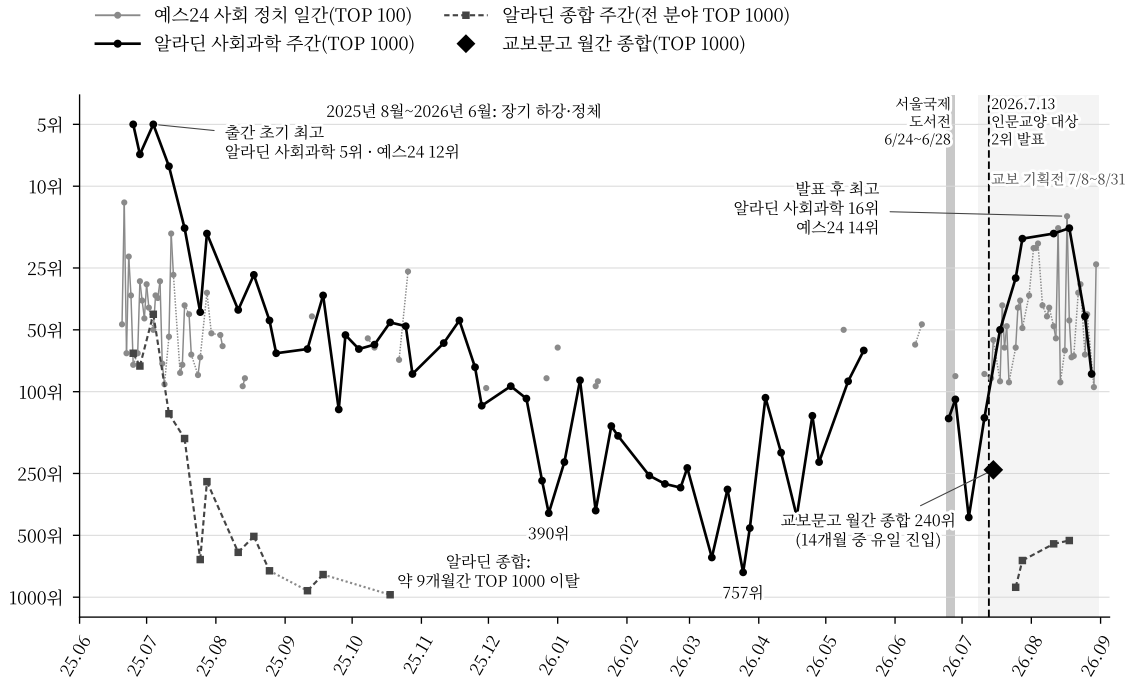
[그림 10] 2026 교보문고 인문교양 대상 2위 선정 전후 순위 변화

주: 발표일은 2026년 7월 13일이다(평가위원 62인 추천, 1위 『먼저 온 미래』).

12) 선정도서 관련 검색어의 웹 검색량 분석

(1) 네이버 데이터랩 기반 분석 결과

출처: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N_f3c6f3f70209e65db98602a017ad9419



[그림 11] 베스트셀러 순위 변동 추이 통합 그래프(2025. 6.~2026. 8.)

주: 예스24 일간, 알라딘 주간(사회과학·종합), 교보문고 월간 지표를 통합했다. 세로축은 로그 눈금이며 위쪽이 상위권이다. 선이 끊긴 구간은 해당 리스트 미진입(예스24 4일 이상, 알라딘 12일 이상)이며, 짧은 공백만 점선으로 연결했다. 알라딘 주간 순위의 주차 표기는 월중 대표 날짜로 환산했다. 발표 전후 비교: 알라딘 사회과학 평균 259위 → 36위, 예스24 TOP 100 진입률 4%(181일 중 7일) → 67%(49일 중 33일), 알라딘 종합 9개월 공백 후 재진입.

주제어1	청정발전	청정, 청정 발전, 청정발전, 청정 발전, 청정발전, 청정발전
주제어2	출경심필	출경심필
주제어3	청정발전의 보스는 알고 있다	청정발전의 보스는 알고 있다
주제어4	오기아 시아라	오기아 시아라
주제어5	주제어 5 입력	주제어 5에 해당하는 모든 검색어를 찾아()로 구분하여 최대 20개까지 입력

기간: 전체 | 1개월 | 3개월 | 1년 | **직접입력** | 일간

2025 | 01 | 01 | - | 2026 | 08 | 31

2016년 1월 이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위: ☒ 전체 ☒ 모바일 ☒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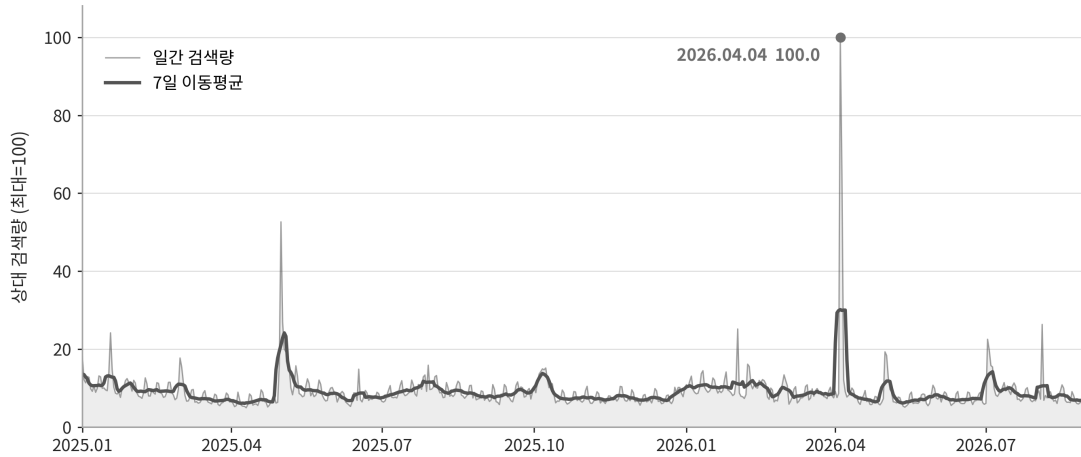
성별: ☒ 전체 ☒ 여성 ☒ 남성

연령선택: ☒ 전체

☒ -12 ☒ 13-18 ☒ 19-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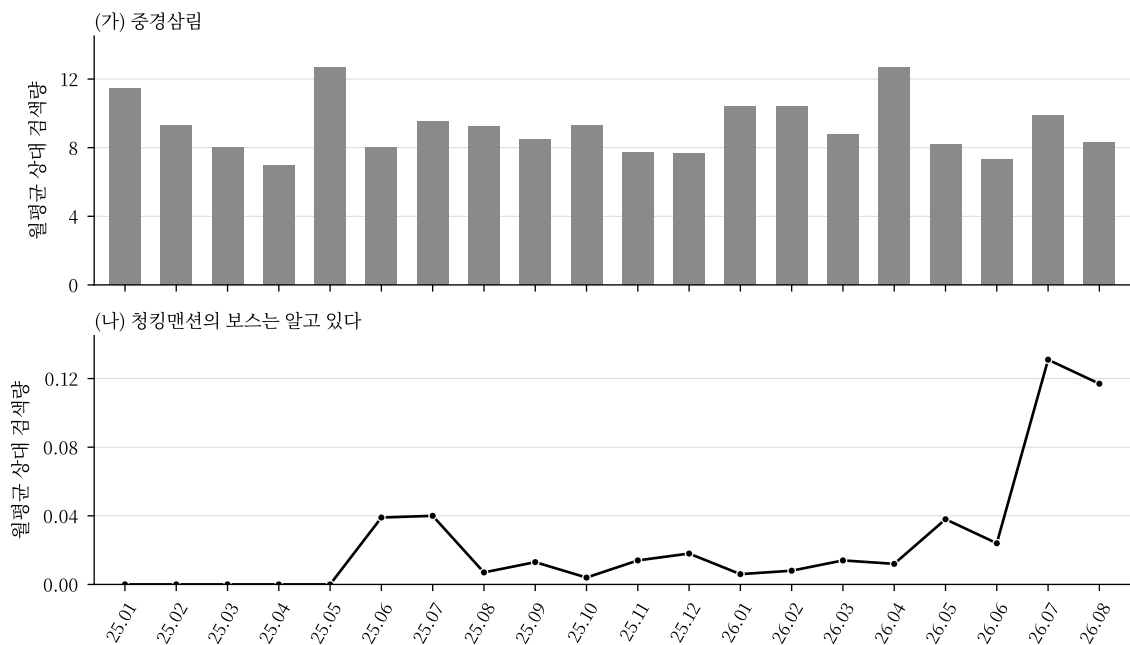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

[그림 12]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설정값



[그림 13] 네이버 데이터랩 '중경삼림' 일간 검색량 추이(2025. 1. 1.~2026. 8. 31.)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통합검색·전체 성별·전체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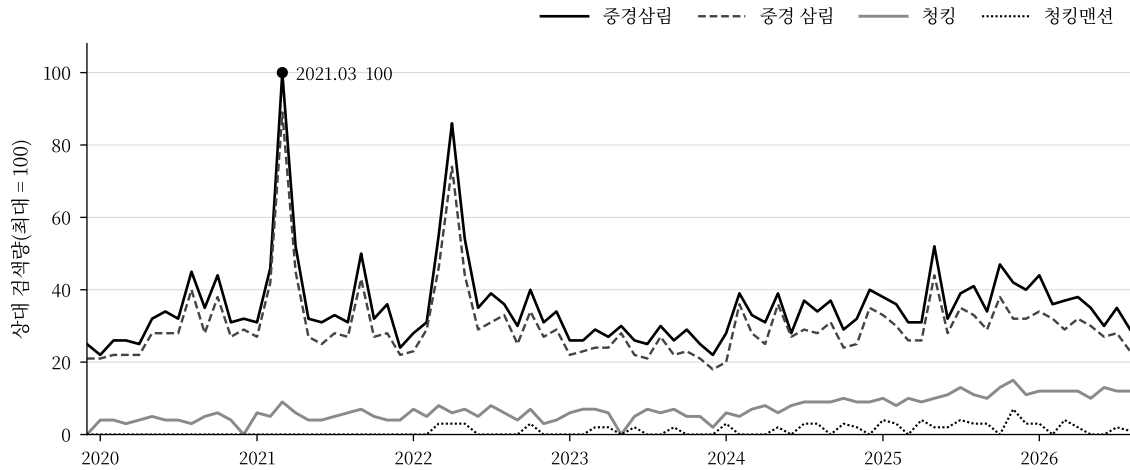
[그림 14] 네이버 데이터랩 월평균 검색량 비교(2025. 1.~2026. 8.)

주: '청킹맨션', '오가와 사야카'는 전 기간 검색량이 0이어서 표시하지 않았다. 두 검색어는 검색량 규모의 차이가 커서 원본의 이중 축 대신 패널을 나누어 표시했다.

(2) 구글 트렌드 기반 월별 검색량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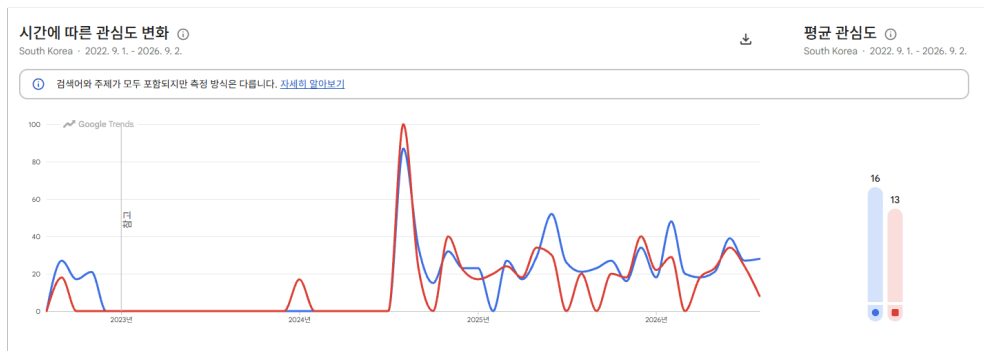
출처: <https://trends.google.co.kr/explore?>

date=2020-01-01%202026-08-31&geo=KR&q=%2Fm%2F02d_q_%2C%2Fm%2F01f8gz%2C%25EC%25B2%25AD%25ED%2582%25B9%2C%25EC%25A4%2591%25EA%25B2%25BD%2520%25EC%2582%25BC%25EB%25A6%25BC



[그림 15] 구글 트렌드 월별 검색량 추이(2019. 12.~2026. 8.)

자료: Google Trends, 검색 지역 대한민국(KR), 월 단위.



[그림 16] 구글 트렌드 시간대별 검색량 추이

(3) 결론

웹 검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화 〈중경삼림〉의 검색량이 2020년대 들어 증가했고 그 영향으로 ‘청킹맨션’의 검색량도 소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킹맨션’이라는 단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심의 증가가 선정도서의 판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중경삼림〉이 2020년대 리마스터링을 계기로 뉴트로 열풍을 일으켰다. 둘째, 여행·관광 콘텐츠의 인기에 따라 관광지로서의 ‘청킹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셋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정도서를 통해 ‘청킹맨션’이 다시 노출되며 판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정도서는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고유명사를 제목에 내세움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끄는 힘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13) 인플루언서 추천

- (1) 유명 저자의 추천 사례가 있다. 2026년 3월 28일 KBS1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작은서점_장강명의 인생책]의 “시대에보” 송길영 작가의 인생책 2편 full ver. – 오가와 사야카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편에서 해당 도서를 추천했다. 그러나 출간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조회수도 5.2천 회(2026년 9월 1일 기준)에 그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26년 3월 28일 전후에는 순위 변동이 전혀 없었다. 2026년 3월 4주 차에는 알려진 사회과학 757위로 전 구간 최저점을 기록했고, 예스24는 2~4월 진입일이 0일이었다.
- (2) 북튜버 ‘공백의 책단장 GongBaek’s Book Dressup’(@gongbaeksbookdressup3399, 구독자 6.72만 명)의 큐레이션이 있다. 2025년 12월 독서 월말 정산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i4fL60VdnTs>)에서 선정도서를 추천했으며 조회수 8.1천 회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역시 출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박시영 디자이너 추천: 유튜브 채널 왓차, 「초면에 이렇게 다 얘기해도 돼? 극과극 두 사람 원소윤 & 박시영 디자이너 | 처음 만난 사이」 (<https://www.youtube.com/watch?v=hjnMYACrx74>), 2026년 5월 9일, 조회수 221,858회.



[그림 17] 박시영 디자이너 추천 영상 캡처

14) 소셜 미디어 해시태그 분석(2026년 9월 1일 기준)

- (1) 인스타그램: #청킹맨션(1,000건 이상), #청킹맨션의보스는알고있다(100건 이상)
- (2) X(옛 트위터): #청킹맨션의보스는알고있다(100~200건)
- (3) 유튜브
 - (가) 홍콩 ‘청킹맨션’을 다루는 콘텐츠는 조회수가 높다. 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고 영화 〈중경삼림〉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어, 이에 관한 답사기가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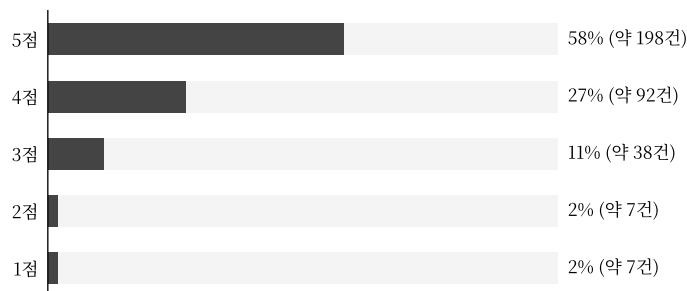
(나) 도서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를 주로 다루는 콘텐츠는 조회수가 비교적 적고, 출판사 갈라파고스의 직간접적인 마케팅 활동도 없어 이 역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15) 원서의 아마존 재팬 판매 지표(2026년 9월 2일 기준)

<표 6> Amazon.co.jp 원서 판매 순위

랭킹 구분	순위
和書 종합	248,629위
문화인류학 일반	519위
정치·사회과학(和書)	24,336위

- (1) Amazon.co.jp 종합 순위는 和書 248,629위로 낮지만, 세부 카테고리(문화인류학 일반)에서는 519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2) 누적 리뷰는 341건, 평균 평점은 4.3점(5점 비중 58%)이다.
- (3) 2020년 오야 소이치 논픽션상·가와이 하야오 학예상 동시 수상, 기노쿠니야 진분대상 5위, 10건 이상의 전국지 서평이 2019~2021년 판매를 견인한 핵심 요인이다.



[그림 18] Amazon.co.jp 별점 분포

주: 총 341건, 평균 4.3점.

- (4) 평균 4.3점, 총 341건이다. 5점 비중 58%에 4점 27%를 더하면 긍정 평가가 85%에 이른다. 1점과 2점은 각각 2%에 불과하며, 실제로 노출된 저평가 리뷰도 ‘중고책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배송·상태에 관한 불만이어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즉 반품·환불 리스크나 평판 리스크가 낮은 상품이다. 또한 리뷰 작성 시점은 2019년 10월, 2020년 6월, 2021년 2·7·12월, 2022년 5월, 2024년 6·8월로 분산되어 있다(상위 리뷰 표본 기준).

<표 7> 일본 온라인 서점별 교차 검증

플랫폼	평점	리뷰·등록 수	순위·재고
Amazon.co.jp	4.3 / 5	341건	和書 248,629위, 재고 11부
楽天ブックス	4.24 / 5	96건	주간 ‘기타’ 26위, ‘경제·재정’ 299위, 재고 3부
honto	4.3 / 5	102건	전자책 병행 판매
読書メーター	80%	등록 1,573건, 감상 335건	Kindle판 별도 등록 227건

- (5) <표 7>에서 주목할 지점은 楽天ブックス(라쿠텐북스)의 주간 랭킹이다. Amazon 종합 순위가 24만 위대인 것과 달리, 라쿠텐에서는 ‘기타’ 카테고리 주간 26위에 올라 있다. 이는 채널별 판매 강도가 다르다는 뜻이며, 일본 국내 서점 채널에서는 여전히 주간 랭킹에 오를 만큼의 판매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6) <표 7>의 読書メーター(독서미터) 등록 1,573건(종이책)과 227건(Kindle)은 일본의 독서 SNS에서 이 책을 ‘읽었다/읽고 싶다’로 표시한 누적 이용자 수이다. 이 플랫폼 이용자는 실구매자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통상 적용되는 10~30배 계수를 대입하면 누적 판매량은 대략 1.5만~4만 부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수상 2관왕과 기노쿠니야 진분대상 5위라는 유통상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하한선보다는 중상단(2만~4만 부)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 (7) <표 8>에서 보듯 이 책의 판매 곡선에는 ‘출간 직후 서평 집중 → 이듬해 수상 2관왕 → 2년 뒤 天声人語(텐세이진고) 언급’이라는 세 차례의 뚜렷한 상승 계기가 있었다.

<표 8> 일본 원서 판매 연표

시기	이벤트	판매 영향
2019. 7.	초판 발행(春秋社)	기준점
2019. 8.~10.	朝日·日経·読売·共同通信 등 전국지 서평 6건, AERA·週刊東洋経済·週刊文春·週刊エコノミスト·婦人公論 등 주간지 노출	출간 직후 최대 스파이크
2019. 12.	週刊読書人 ‘2019년의 수확’ 선정	연말 재점화
2020. 1.	기노쿠니야 진분대상 2020 5위	서점 매대 재배치
2020.	제51회 오야 소이치 논픽션상 수상 제8회 가와이 하야오 학예상 수상	최대 동인(수상 띠지·중쇄)
2021. 10.	朝日新聞 ‘天声人語’ 소개	출간 2년 후 재스파이크
2025. 6.	한국어판 출간(갈라파고스)	해외 판권 수익 발생

16) 국내 리뷰 분석 통계

<표 9> 국내 리뷰의 유형별·국면별 분포

구분	1기(출간)	2기(침체)	3기(반등)	미상	합계
언론	8	5	2	1	16
독자 게시물	2	1	0	2	5
세미나·강의	0	3	0	0	3
인플루언서	0	1	0	1	2
서점 큐레이션	3	1	0	1	5
지역서점	1	2	1	1	5
출판사 게시물	4	0	0	1	5
도서관·기관	1	1	0	2	4
합계	19	14	3	9	45

<표 10> 리뷰 핵심어 ‘검사검사’의 확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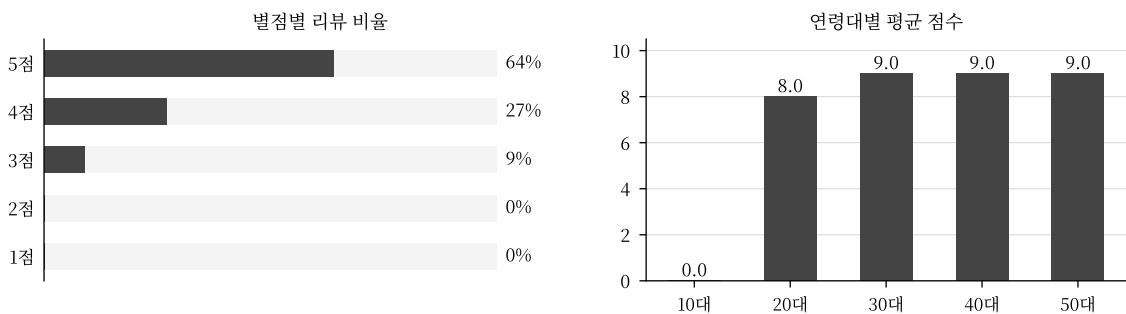
단계	일자	국면	출처	사용 맥락
① 책	2025-06-20	—	제2장 제목, 제2장 절, 최종장 절	‘검사검사’가 구축하는 안전망 / ‘검사검사’의 논리
② 언론	2025-06-19	1기	경향신문 정원식	둑고 살자는 ‘검사검사’
③ 독자	2025-07-01	1기	알라딘 서재 739740100	‘검사검사’의 경제를 외치다
④ 언론	2025-07-16	1기	주간경향 이재덕	‘검사검사 공존’서 엮본 공유 경제
⑤ 독자	2025-11-22	2기	브런치 @manya	나눔의 성격을 ‘검사검사’로 명명
⑥ 독자	미상	미상	알라딘 서재 blanca98	탄자니아인 공동체 문화를 ‘검사검사’로 요약
⑦ 언론	2026-08-28	3기	한겨레 정지우	‘환대’와 ‘검사검사’, 계산 바깥의 마음

<표 11> 책 목차 표현이 기사·리뷰로 전이된 사례

책 목차 표현	위치	전이 매체	사용 형태	출처
‘검사검사’가 구축하는 안전망	제2장 제 목	경향신문 2025-06-19	둑고 살자는 ‘검사검 사’(표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92031005
‘검사검사’의 논 리	제2장 절	알라딘 서재 739740100	‘검사검사’의 경제를 외치 다(리뷰 제목)	https://blog.aladin.co.kr/739740100/16562540
사려 깊은 무관심	제1장 절	브런치 @many a	사려 깊은 무관심으로(리 뷰 제목)	https://brunch.co.kr/@many a/947
공유경제를 지탱 하는 TRUST	제4장 제 목	알라딘 서재 739740100	‘검사검사’의 논리로 돌아 가는 TRUST 시스템	https://blog.aladin.co.kr/739740100/16562540
자신과 타자의 ‘검사검사’를 잘 길들이기	최종장 절	주간경향 2025-07-16	‘검사검사 공존’서 엮본 공 유 경제(표제)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7160600031
‘검사검사’(전체)	제2장·최 종장	한겨레 2026-08-28	‘환대’와 ‘검사검사’, 계산 바깥의 마음(표제)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75054.html

17) 국내 리뷰 내용 분석

(1) 예스24 리뷰 내용 분석(전체 리뷰 11건)



[그림 19] 예스24 평균 별점 및 별점 분포

주: 예스24 회원 10명이 평가한 평균 별점은 9.0점(10점 만점)이다.

(가) 긍정적 반응 요약

- ① 검사검사: 회원 리뷰 11건 중 5건이 이 단어를 그대로 옮겨 썼고, 한줄평 3건 중 1건은 이 단어 하나로 감상을 마무리했다. 부담 없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돕는다는 태도는 독자들이 책에서 가장 확실하게 얻어 간 개념이다.
- ② 신용·신뢰: 카라마라는 인물의 흡인력이 두드러진다. 게으르고 약속을 어기는 ‘덜 된 보 스’라는 인물상이 학술서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여러 리뷰가 저자의 분석보다 카라마의 어 록을 먼저 인용하며, 저자와 카라마 두 사람의 조합 자체를 이 책의 매력으로 꼽는다.

- ③ 가독성: ‘인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이었나?’ 하는 반응이 이어진다. 재미·흥미·술술 읽힘을 직접 언급한 글이 14건 중 7건이다. 누아르 영화나 『괴짜경제학』,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을 끌어오는 비유가 반복된다. 학술 명저라는 수상 이력보다 ‘소설처럼 읽힌다’는 점이 실제 구매를 설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부정적 반응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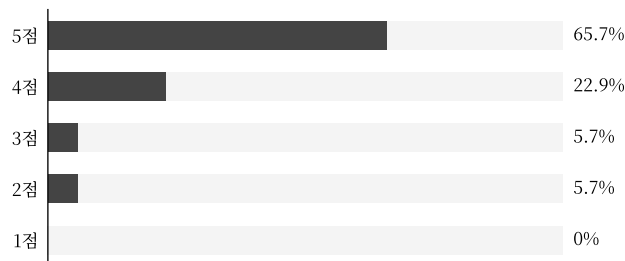
- ① 연구의 효용에 대한 회의: 규모도 작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장사법을 왜 연구하는지 끝까지 의문이었다는 반응이다. 호수성 같은 용어는 새로 배웠지만 그 시스템을 설명해 보라면 못 하겠다고 솔직하게 적었다(s*****m, 8점).
- ② 정서적 거리: 이들의 돌봄이 부럽지만 동시에 멀게 느껴진다는 감상이다. 그 이유를 스스로 ‘뻘속까지 한국인이라서’라고 진단한다. 책의 논지는 이해했으나 한국 사회에 옮겨 올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유형이다(a*****2, 8점). 홍콩·아프리카·비공식 경제라는 소재의 이국성을 기대한 독자로, 재미는 인정하지만 자기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 ③ 장르 불일치: 제목만 보고 골랐다가 논문에 가까운 사회과학서를 만난 경우이다. 무난히 읽었다면서도 기대와 달랐다고 평가했다(d*****8, 6점). 논픽션 르포나 누아르풍 이야기를 기대하고 책을 집어 든 독자로, 제목과 표지가 만든 기대와 실제 서술 방식(현장 연구 보고에 가까운 구성) 사이의 간극이 그대로 감점 요인이 되었다.

<표 12> 예스24 회원 리뷰 요약

평점	작성자	작성일	리뷰 요지
10	j***a	26.01.25	청킹맨션을 직접 가 본 경험에서 출발해, 답례 의무가 없는 ‘분배’로 굴러가는 경제를 설명한다.
10	q*****2	25.12.13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만들어진 질서로 읽는다. 국경을 넘어 시신을 운구하는 네트워크를 결정적 장면으로 꼽는다.
10	a*****e	25.06.30	등급도 배제도 없는 조합의 운영 방식을 분석하며, 신용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놓친 것을 묻는다. [최장문, 5,700자]
10	a*****e	25.06.30	같은 리뷰어의 두 번째 글. 영화 〈중경삼림〉을 함께 보며 청킹맨션의 시간층을 겹쳐 읽는다. [중복 계정]
10	s*****7	25.06.24	담보 없는 신뢰가 왜 필요한지를 발췌 중심으로 논증한다. 돈벌이를 관계의 수단으로 보는 대목에 방점을 둔다. [도서 제공]
10	a****7	25.06.30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 깨진 경험으로 읽는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인생을 찾으러 왔다’는 대목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서평단]
10	j*****8	25.08.26	누아르인 줄 알고 집었다가 재미있게 읽었다는 짧은 감상. 표지와 제목이 구매 동기였음을 밝힌다. [구매]
8	s*****m	26.02.23	호수성 개념은 새로 배웠지만, 이 연구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끝까지 의문이었다고 적는다.
8	a*****2	25.08.26	한국의 ‘정(情)’에 빗대어 이해하려 하지만, 부러움과 거리감이 동시에 든다고 말한다. [eBook 구매]
8	r*****n	25.06.30	‘내가 널 도우면 누군가 나를 돕는다’는 원칙을 가장 흥미로운 개념으로 꼽는다. 소설보다 재미있다는 평. [도서 제공]
6	d*****8	26.04.30	제목만 보고 골랐다가 논문 형식의 사회과학서를 만났다. 무난했지만 기대와 달랐다는 총평.

※ 한줄평 3건(모두 구매자): “‘점사점사’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5/5),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읽을 책”(5/5), “『괴짜경제학』이 떠오른다”(4/5)

(2) 알라딘 리뷰 내용 분석(전체 리뷰 11건)



[그림 20] 알라딘 평점 분포

주: 평균 9.0점.

<표 13> 알라딘 리뷰 개요

구분	건수	비고
호평(추천·만족)	29건	전체의 약 81%
혼합·유보	4건	흥미롭게 읽었으나 거리감이나 한계를 함께 지적
비판	2건	패스파인더(100자평과 리뷰 작성자 동일), 책방먼지(제목·해석의 과장 우려)
판정 불가	1건	호호(감상 없이 책 발췌만 게시)

<표 14> 알라딘 독자 주요 인용 문구

위치	내용	인용한 리뷰어
31쪽	“아무도 신용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 세계, 호수성 개념 정의	바람돌이, 하이드, girafe, 호호
91~92쪽	일관된 불변의 자기(自己)는 없다: 냉정함과 관용의 표리일체	피오나, 뿔, 호호
93쪽	조합이 서로 돕는 기준과 규칙을 어느 쪽도 명확히 하지 않는다	냐냐냐, 나무
96~97쪽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는 사기꾼의 친구가 아니다”	hellas, 호호
157·173쪽	TRUST의 비등급화 설계, 이기심과 이타성의 의도적 혼동	뿔, girafe
259쪽	‘안심·안전’ 담론이 낳는 즉시 청산의 태도, 선순환에서 악순환으로	blanca, 피오나, 뿔, 냐냐냐
286쪽, 에필로그	불확실성의 긍정, “카라마와 그의 동료들에게 매력이 있다는 사실만은 전하고 싶었다”	hellas, 나무, tpflem132

(가) 핵심 요약

- 독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언급하는 것은 ‘인류학 책인데 소설보다 재미있다’는 가독성이다. 36건 중 절반 이상이 재미·몰입·술술 읽힘을 직접 언급한다.
- 개념 차원에서 압도적인 1위 키워드는 ‘검사검사’이며, 그 뒤를 ‘열린 호수성(互酬性)’, ‘느슨한 연대’, ‘커먼즈/TRUST’가 잇는다.
- 대부분의 리뷰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으로 나아간다. 즉시 청산하는 관계, 자기 증명 강박, 기브 앤드 테이크 감각이 반복적으로 소환된다.
- 카라마라는 인물의 매력이 책의 흡인력을 만든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으나, 그의 ‘적당함’을 미덕으로 읽을지 무책임으로 읽을지에서는 평가가 갈린다.
- 가장 깊이 있는 리뷰들은 이 모델의 성립 조건(정주자가 아닌 ‘이동자’, 불안정한 신분)을 짚으며, 한국 사회에 옮겨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유보한다.

(나) 핵심 내용 분석

- ① 가독성: groove4312는 “인류학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재미있다”고 잘라 말하고, 피오나는 “웬만한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다고, 초록색은 “드라마나 영화, 넷플 다큐를 보는 것 같은 영상적인 매력”이 있다고 표현한다. 이수빈은 “막연했던 호혜·호수성 개념을 여행 에세이 읽듯 읽을 수 있었다”며 학술 개념의 접근성을 높이 평가한다. 파닥파닥은 “인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이구나”라며 학문 자체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다고 적는다. 비문학을 거의 읽지 않는 독자까지 완독했다는 점은 이 책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방증으로 여러 차례 언급된다.
- ② 검사검사: 36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이다. 독자들은 이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김에 돕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바람돌이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검사검사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ililliillii는 캐리어의 빈 공간에 남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장면을 “해외 갈 때 면세품 부탁이 짜증난다”는 한국 인터넷 고민 글과 대조해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Laika는 “남을 도울 때는 검사검사 해도 충분하다”를 이 책의 교훈으로 요약한다. 반면 황제만세는 “대부분의 한일 독자들은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개념의 정서적 번역 불가능성을 지적한다.
- ③ 믿지 않기에 도울 수 있다는 역설: 초록색은 “서로를 믿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믿지 않을 때 문에 뭔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압축한다. mona는 “기본은 불신”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그 위에서 상황에 맞게 현재의 신뢰가 구성된다고 본다. abbey는 이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두를 신용하는 열린 호수성”으로 개념화한다. 여러 독자가 여기서 ‘고정된 진짜 자아는 없다’는 인간관(91~92쪽)을 핵심 근거로 인용한다. 맑은 한발 더 나아가, 도움을 당사자에게 되갚는 대신 더 넓은 세계로 이전함으로써 세계 자체가 커먼즈가 된다고 읽는다.
- ④ 커먼즈·TRUST: 조합과 SNS 네트워크 TRUST의 설계에 주목한 리뷰들이 있다. 맑은 TRUST가 “신용할 수 있는 브로커를 가려내는 필터가 아니라, 거래 실적·자본 규모·과거의 배신과 무관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설계”라는 점을 아마존식 평점 시스템과의 결정적 차이로 꼽는다. 나무는 조합이 공헌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지 않고 무임승차자를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개방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수평적 네트워크”로 정리하며, 신용(credit)과 신뢰(trust)를 혼용하는 우리 문화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묻는다. 바람돌이는 저자가 이 네트워크를 쿠팡식 평점 시스템으로 정비하자고 제안했을 때 카라마가 거절한 대목에서 저자와 당사자의 시각차를 읽어 낸다.
- ⑤ 대표 인용구(259쪽): ‘안심·안전’을 앞세운 사고방식이 빌려준 것과 빌린 것을 즉시 청산하려는 태도를 낳는다는 259쪽의 대목은 여러 리뷰가 공통으로 인용한 사실상의 대표 인용구이다. blanca는 “뜨끔한다”며 친구 사이의 밥값 계산 같은 부채감까지 끌어와, 호혜의 등가성이 “내가 더 이상 역할을 못 할 때 관계가 무너지는 무서운 논리”라고 지적한다. 바람돌이는 사라진 히치하이커 문화를, 싱싱은 “가진 것이 없는 나는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나무는 “가리봉 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라는 한국판 상상을 각각 내놓는다. abbey와 tpflem132는 무너진 사람에게 이유를 묻지 않는 태도, 즉 “어느 정도 ‘호구’가 될 마음”을 동료가 되는 조건으로 제시한다.

- ⑥ 주인공 카라마: 독자들의 애정과 유보가 동시에 향하는 지점이다. blanca는 그를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에 비유하고, 나무는 “게으르고 놀랄 만큼 적당주의자이며 멋 부리기를 좋아하는” 인물에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고 고백한다. 나나나는 약속을 태연히 어기고 남의 냉장고를 뒤흔들면서도 잘 곳 없는 이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관성 없음을, 인간 이해의 폭을 가늠하게 하는 “혼란스러운 행간”이라 부른다. 반면 ililliillii는 “개인적으로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대인배임은 틀림없다”며 호감과 인정을 분리하고, mona는 “약속 안 지키고 SNS에서 과시적이며 뒤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과 과연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겠나”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리뷰를 맺는다.

(다) 부정적 반응 분석

- ① “인간극장처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풀이하니 오히려 공감이 안 되었다”며, 부제가 내세운 이론적 주장을 “꿈보다 해몽”이라고 일축한 리뷰가 있다. “해석이 들어간 순간, 본질이 더 흐려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무리는 민족지적 해석 작업 자체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
- ② “이주자 커뮤니티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호혜성으로 보이는데, 마치 홍콩의 탄자니아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처럼 읽힐까 봐 염려”된다며 “제목이 캐치하면서도 오해를 부른다”고 지적한 리뷰도 있다. 마케팅과 내용 사이의 간극을 문제 삼은 드문 글이다.
- ③ ililliillii는 “저런 삶도 있구나 하고 다큐 보는 느낌으로 읽은 책(우리나라에선 안 될 것 같은...)”이라 적고, 황제만세는 “홍콩이라는 지역적 특징과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가 융합되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조건을 단다. abbey 역시 “저자가 그린 유토피아가 한국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온라인 기반의 작고 느슨한 연대 정도가 참고할 만한 지점이라고 본다.
- ④ 에르고숨은 영화 〈중경삼림〉에 대한 향수로 책을 집어 들었다가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섭섭했다”고 적는다(그럼에도 결론은 “재밌었음”). 익명의 100자평 하나는 “홍콩에 대한 환상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생쥐스프는 필드 노트로서는 만점이지만 “본격적 민족지 version의 청킹맨션도 읽어보고 싶다”며 학술적 깊이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다.

(라) 알라딘 리뷰 결론

독자 반응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학술서의 외피를 쓴 인물 다큐멘터리이고, 그래서 재미있으며, 다 읽고 나면 한국에서의 내 관계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재미와 자기 성찰이라는 두 축이 거의 모든 호평의 공통 구조이다. 반면 이 책이 이론서로서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해서는 소수의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부제가 내세운 “호혜·증여·분배 이론을 뒤흔드는”이라는 주장을 두고 한쪽은 개념적 성취로, 다른 한쪽은 “꿈보다 해몽”으로 읽는다. 또한 이 커먼즈가 ‘이동자’라는 특수한 조건 위에서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비정주성이 보편화된 오늘날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인지에 대해서도 리뷰어들의 판단이 갈린다. 이 두 논점이 이 책을 둘러싼 실질적인 쟁점이다.

(마) 예상 독자층

- ① 인류학 분야 도서에 입문하려는 독자층
- ② 공유경제, 커먼즈, 기본소득 등 대안 경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층

- ③ 비공식 경제, 이주 노동자, 아프리카-아시아 교역 등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층
- ④ 인간관계에 지쳐 있거나, 연대에 관한 고민으로 관련 사례를 탐색하는 독자층
- ⑤ 영화 〈중경삼림〉 등 홍콩 누아르의 낭만이나 청킹맨션에 관한 내용을 기대하는 독자층

(3) 교보문고 독자 리뷰 분석

<표 15> 교보문고 독자 리뷰 분석 개요

구분	내용
분석 소스	교보문고 상품 페이지(S000216841689)의 Klover 리뷰 영역
전체 평가	69명 참여, 평점 9.9점(10점 만점)
수집·분석 대상	구매 리뷰 61건(종이책 58건, eBook 3건)
리뷰 기간	2025. 6. 21.~2026. 9. 2.(약 14.5개월)
별도 콘텐츠	문장 수집 14건(본 분석에서 제외)
방법	전 페이지(1~7쪽) 리뷰를 전수 수집한 뒤 키워드 코딩 및 시계열 분석

<표 16> 교보문고 리뷰 발생 시기 분포

기간	리뷰 수	비중	국면
2025. 6.~2025. 8.(출간 초기)	18건	29.5%	출간 직후 신간 효과
2025. 9.~2026. 6.(침체기)	15건	24.6%	월평균 1.5건, 장기 저활동
2026. 7.~2026. 9.(재점화)	28건	45.9%	인문교양 대상 프로모션 구간

<표 17> 교보문고 독자 반응 키워드

반응 키워드	언급 건수	비중	대표 표현
재미·흥미	20건	32.8%	"압도적으로 재밌다"에 준하는 직접적 재미 언급
새로운 시각·인사이트	11건	18.0%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인문·인류학 장르 인식	11건	18.0%	"생애 처음 읽은 문화인류학 서적"
가독성(술술 읽힘·쉬움·문체)	10건	16.4%	"술술 읽히고 집중 잘 됐어요"
명시적 추천	8건	13.1%	"매우 추천", "강력 추천합니다"
소재(홍콩·탄자니아·아프리카)	6건	9.8%	"홍콩에 사는 탄자니아 교역인 이야기가 흥미"
제목의 흡인력	4건	6.6%	"제목에서부터 시선을 이끄는 강렬한 책"
미독(未讀) 상태의 리뷰	6건	9.8%	"아직 읽기 전, 재밌을 것 같아요"

<표 18> 교보문고 독자의 부정적 반응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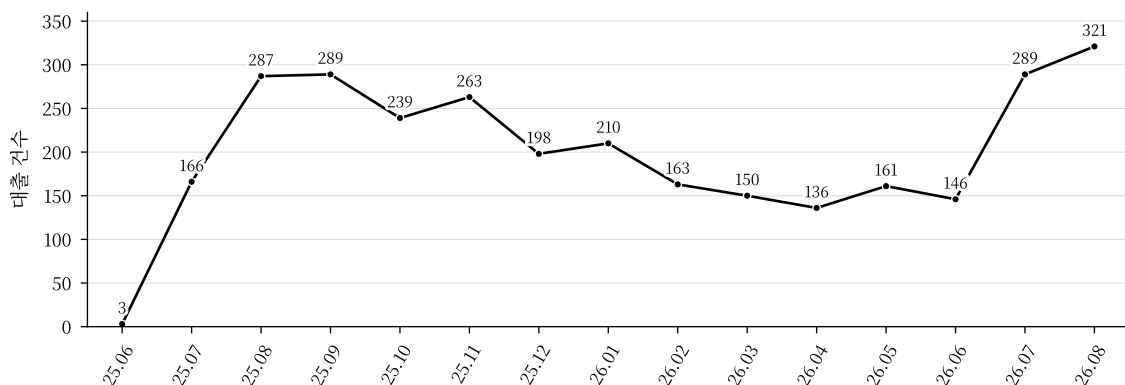
유형	건수	내용	대응 방향
제목·기대 불일치	2건	"홍콩 이야기가 아니었네", "제목과 다른 내용"	상세 페이지 상단에 '탄자니아 교역인' 명시 강화
학술적 신뢰성 유보	1건	"진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상 이력·참여 관찰 기간 등 권위의 근거 노출
리뷰 자산의 빈약	34건	20자 이하 단문이 과반	장문 리뷰 이벤트로 설득형 콘텐츠 확보
미독 리뷰	6건	도착·기대 단계의 리뷰	실제 독서 후 재리뷰 유도 필요

교보문고 Klover 평점 9.9점(69명 참여)이 보여 주듯 이 책에 대한 독자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리뷰 텍스트를 살펴보면 만족의 근거가 학술적 깊이보다 ‘재미’와 ‘가독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이 책의 실제 시장 포지션을 보여 준다. 즉 이 책은 인문·인류학 서적이지만 독자에게는 ‘논픽션 읽을거리’로 소비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지표는 리뷰 시점의 분포이다. 출간 직후(2025년 7~8월) 15건이 몰린 뒤 2025년 말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는 월 1~3건으로 침체했으나, 2026년 7~8월에 27건이 다시 집중되어 전체 리뷰의 44.3%가 이 두 달에 발생했다. 이는 ‘2026 교보문고 인문교양 대상’(2026년 7월 8일~) 등 리테일 프로모션이 만들어 낸 명백한 2차 판매 사이클이며, 이 책이 스스로 굴러가는 스테디셀러라기보다 ‘노출을 주면 즉시 반응하는 상품’임을 시사한다. 다만 제목과 실제 내용 사이의 기대 불일치 (“홍콩 이야기가 아니었네”, “제목과 다른 내용”)가 소수이지만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이 지표에서는 구매 유입 경로의 단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뷰를 통해 파악되는 유입 경로는 ① 제목 및 표지 디자인, ② 박시영 디자이너 등 인플루언서의 추천, ③ 2026 서울국제도서전 등 오프라인 행사, ④ 『세계 끝의 버섯』 등 연관 도서의 구매, ⑤ 장르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다.

18) 도서관 대출 동향 및 지표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2026년 9월 2일 기준), <https://www.data4library.kr/bookV?seq=7079712>



[그림 21] 선정도서 도서관 대출 추이

자료: 도서관 정보나루(2026년 9월 2일 기준). <표 19>의 월별 대출 건수이다.

<표 19> 선정도서 월별 대출 건수

대출연월	대출건수	대출순위
2025년 6월	3	253,154
2025년 7월	166	12,268
2025년 8월	287	6,383
2025년 9월	289	5,143
2025년 10월	239	5,456
2025년 11월	263	5,337
2025년 12월	198	8,023
2026년 1월	210	9,298
2026년 2월	163	9,850
2026년 3월	150	11,915
2026년 4월	136	13,172
2026년 5월	161	9,733
2026년 6월	146	10,847
2026년 7월	289	5,104
2026년 8월	321	4,603

<표 20> 다대출 그룹

연령	성별	대출건수	순위
20대	여성	42	405



[그림 22] 전국 도서관 제공 주요 키워드

<표 21> 선정도서와 함께 대출된 도서

순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ISBN
1	먼저 온 미래: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장강명	동아시아	2025	9788962626605
2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김기태 소설	김기태	문학동네	2024	9788954697941
3	귀신들의 땅: 천쓰홍 장편 소설	천쓰홍(김태성)	민음사	2023	9788937454820
4	경험의 멸종: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크리스틴 로젠(이영래)	어크로스(어크로스출판그룹)	2025	9791167742063
5	궤도	서맨사 하비(송예슬)	서해문집	2025	9791194413394
6	연매장: 팡팡 장편소설	팡팡(문현선)	문학동네	2025	9791141609962
7	안녕이라 그랬어: 김애란 소설	김애란	문학동네	2025	9791141602376
8	나는 북경의 택배기사입니다: 일 이 내게 가르쳐준 삶의 품위에 대하여	후안옌(문현선)	월북	2025	9791155818299
9	대온실 수리 보고서: 김금희 장편 소설	김금희	창비	2024	9788936439651
10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 소설	클레어 키건(홍한별)	다산북스	2023	9791130646381

이 지표 역시 출간 직후 신간 효과를 누린 기간과, 이후 인문교양 대상 후보에 오르며 대출 건수가 다시 증가한 흐름을 보여 준다. 아울러 주요 다대출 그룹이 20대 여성이라는 점, 7월 이후 전국에서 꾸준히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는 이 도서에 [사회학 및 인류학, 커먼즈, 공유경제, 비공식경제] 태그가 등록되어 있다.

19) 오프라인 서점 재고량(2026년 9월 3일 기준)

(1) 교보문고

출처: <https://kiosk.kyobobook.co.kr/product/book/S000216841689?site=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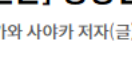
<표 22>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별 재고 현황

지역	매장명	재고(부)
서울	강남점	14
	영등포점	8
	이화여대점	4
	목동점	2

지역	매장명	재고(부)
	고척점	1
	동대문점	1
	수유점	1
	은평점	1
	잠실점	1
	천호점	1
	청량리점	1
	합정점	1
	소계(12개 매장)	36
지방	대전점	5
	대구점	4
	경성대·부경대점	1
	광주상무점	1
	부산점	1
	세종점	1
	센텀시티점	1
	울산점	1
	창원점	1
	천안점	1
	칠곡점	1
	해운대 팝업스토어	1
	소계(12개 매장)	19
	합계	24개 매장
		55

[인문]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오가와 사야카 지자(글) | 갈락파고스 | 2025.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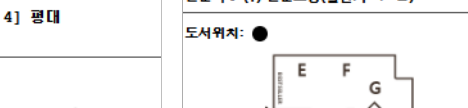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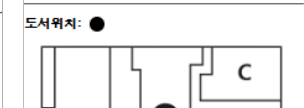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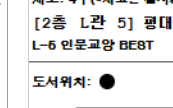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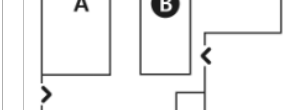


정가	18,500 원
재고	23 다른 매장 재고
서가위치	[K관 2] 평대 인문학

< 01 - 03 >
[미리보기](#)



[그림 23] 교보문고 광화문점 재고 현황

[인문] 쥔깁뎡뎡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오가와 사야카 갈라파고스 2025.06.20 18,500원 재고: 14부(→재고는 실시간으로 변경) [D관 9~1] 판매 인문베스트 [D관 0~3] 벽면 인문학 > (1) 인문교양(출판사 7~10) 도서위치: ● 	[인문] 쥔깁뎡뎡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오가와 사야카 갈라파고스 2025.06.20 18,500원 재고: 8부(→재고는 실시간으로 변경) [D관 9~1] 판매 인문/역사/종교 BE8T [D관 40] 벽면 교양인문 > (1) 교양인문(출판사문) 도서위치: ● 	[인문] 쥔깁뎡뎡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오가와 사야카 갈라파고스 2025.06.20 18,500원 재고: 4부(→재고는 실시간으로 변경) [2층 L관 5] 판매 L~5 인문교양 BE8T 도서위치: ● 
[그림 24] 교보문고 강남점 재고 현황 	[그림 25] 교보문고 영등포점 재고 현황 	[그림 27] 교보문고 대구점 재고 현황 

(2) 알라딘 오프라인 서점

[2025년 사회과학 분야 51회]

청강현선의 보스는 알고 있다

[\[소속공표\]](#)

오가와 사야카 (지음), 지바 토키 (출간) | 갈라파고스 | 2025년 6월

최저가: 11,900원 | 최고가: 11,900원
재고: 1부 | 도서 위치: G50 [뒤에서부터 1번째칸]

[우주점에서 구매하기](#)
[소평목록 추가](#)
[올려주기](#)

- 소평목록에 추가하신 후 목록을 클릭하시면 책장에서 간편하게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사회과학 분야 51회]

청강현선의 보스는 알고 있다

[\[소속공표\]](#)

오가와 사야카 (지음), 지바 토키 (출간) | 갈라파고스 | 2025년 6월

최저가: 11,500원 | 최고가: 11,500원
재고: 1부 | 도서 위치: G23 [뒤에서부터 1번째칸]

[우주점에서 구매하기](#)
[소평목록 추가](#)
[올려주기](#)

- 소평목록에 추가하신 후 목록을 클릭하시면 책장에서 간편하게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 28] 알라딘 오프라인 서점 재고 페이지 (1)

[그림 29] 알라딘 오프라인 서점 재고 페이지 (2)

(3) 예스24 오프라인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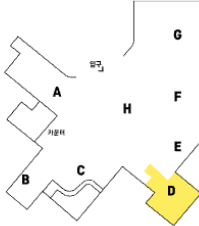
[도서] 청계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기존의 호혜, 증여, 분배 이론을 뒤흔드는 불확실성의 인류학

오가와 사야카 지/지비원 역 | 갈라파고스 | 2025년 06월 20일

판매가 **18,500원**

도서 위치 : [D14-8]

- 매장 내 실시간 상품 판매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위치에서 없으면 가까운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림 30] 예스24 구의점 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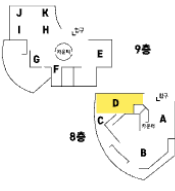
새상품

[도서] 청계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기존의 호혜, 증여, 분배 이론을 뒤흔드는 불확실성의 인류학

오가와 사야카 지/지비원 역 | 갈라파고스 | 2025년 06월 20일

18,500원

위치: [D03] 4권



[그림 31] 예스24 강서NC점 재고 현황

2. 저자 정보

1) 저자명: 오가와 사야카(小川さやか)

2) 출생: 1978년(48세)

3) 국적: 일본

4) 직업: 문화인류학자

5) 이력

- (1) 문화인류학 전공
- (2) 교토대학교 지역연구 박사
- (3)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4) 국립민족학박물관 연구전략센터 기관연구원 및 조교
- (5) 리쓰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교수 재직 중

6) 소개

리쓰메이칸대학교 교수이자 현대 일본 지성을 대표하는 문화인류학자이다. 학문적 역량과 함께, 전문적 주제의 무게와 깊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탁월한 인문학 연구자로도 유명하다. 전문 분야는 민족이나 지역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경제인류학과, 도시에서의 삶과 생존을 고찰하는 도시인류학이다. 중고품·복제품의 유통과 소비로 본 현대 아프리카의 소비문화, 위기 상황의 역학과 실천 행위에 관한 인류학, 증여 경제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탄자니아에서 직접 현 옷 행상을 하며 관찰한 현지 영세 상인의 삶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묘책: 탄자니아 영세 상인 마칭가의 민족지』로 주목받았으며, 2011년 이 책으로 권위 있는 학술상인 산토리 학예상을 수상하면서 일본 인문학계의 차세대 사상가로 혜성처럼 떠올랐다. 그 밖에 『아프리카에 부는 중국 바람, 아시아 선풍: 개발도상국 간 경쟁에 노출되는 지역 산업』 등의 공저서가 있다. 신슈대학교 인문학부 인간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교토대학교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기관연구원 및 조교를 거쳐 2013년부터 리쓰메이칸대학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7) 특이 사항

대학원생이던 23세 때부터 탄자니아를 오가며, 마칭가라 불리는 영세 상인들에게서 장사 기술과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그들의 삶과 관습을 참여 관찰했다. 이후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중고품·위조품 유통 및 소비, 홍콩·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비공식 교역의 구조 등을 연구했다. 홍콩 청킹맨션에 체류하며 그곳에 사는 탄자니아인들의 비즈니스와 삶의 방식을 참여 관찰한 결과를 담아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를 출간했다.

8) 주요 저서 및 논문

- (01) 『チョンキンマンションのボスは知っている: アングラ経済の人類学』. 春秋社, 2019. 7. 24. (선정 도서의 원서)
- (02) 『都市を生きぬくための狡知: タンザニアの零細商人マチングの民族誌』 (도시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 탄자니아 영세 상인 마칭가의 민족지). 世界思想社, 2011. 3. 7.
- (03) 「アフリカに吹く中国の嵐、アジアの旋風: 途上国間競争にさらされる地域産業」 (아프리카에 부는 중국 바람, 아시아 선풍: 개발도상국 간 경쟁에 노출되는 지역 산업). 吉田栄一 編. アジア経済研究所, 2007, pp. 83-112(분담 집필).
- (04) 『京大式フィールドワーク入門』. 京都大学アジア・アフリカ地域研究研究科・東南アジア研究所 編. NTT出版, 2006, pp. 57-74(분담 집필).
- (05) 「또 하나의 일회용 문화: 동아프리카의 헌 옷 유통·소비」. 『아스티온』 (산토리문화재단) 77, 2012, pp. 116-133.
- (06) 「일회용 문화의 이면에서 새로운 소비문화론으로: 아프리카의 중고품·비정규품 유통·소비로부터」. 『민박통신』 (국립민족학박물관) 137, 2012, pp. 1-10.
- (07) 「탄자니아 도시 영세 상인의 처세의 교지(狡知): 거짓말과 시간을 둘러싼 일고찰」. 『역사와 민속』 28(특집: 속임—불행한 예술). 헤이본샤(가나가와대학 일본상민문화연구소 기요), 2012, pp. 97-125.
- (08) The Social Space of Street Trad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asons of Riots. In Kimambo, Maghimbi, and Sugimura (eds.), Comparative Perspective on Moral Economy: Africa and Southeast Asia. Dar es Salaam University Press, 2011, pp. 228-245.
- (09) 「우장자의 공연·경연 공간으로서의 탄자니아 대중음악 ‘봉고 플레이어」. 『구니타치 인류학 연구』 (히토쓰바시대학) 3, 2008, pp. 22-46.
- (10) 「비평: 다큐멘터리 영화 〈다윈의 악몽〉의 무대에서」. 『아프리카 리포트』 (아시아경제연구소) 45, 2007, pp. 1-5.
- (11) 「탄자니아 도시 헌 옷 상인의 상관행 변용에 나타난 평등성과 자율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연구』 (교토대학 대학원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연구연구과) 6(2), 2006, pp. 579-599.
- (12) Earning among Friends: Business Practices and Creed among Petty Traders in Tanzania. African Studies Quarterly 9(1&2) (University of Florida Online Journal), 2006.
- (13) The Trade of Second-hand Clothes in the Local-Mega City Mwanza, Tanzani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cial Network of Mali Kauli Transaction. African Study Monographs, Suppl. 29, 2005, pp. 205-219.
- (14) 「도시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에서의 연대와 생활 신조: 탄자니아 지방 거점 도시 므완자시의 헌 옷 신용 거래를 사례로」. 『아프리카 연구』 (일본아프리카학회) 64, 2004, pp. 55-85.
- (15) 「중국의 아프리카 연구와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 동향 조사」. 『2011 연구전략센터 활동 보고』 (국립민족학박물관), 2012.
- (16) 「덴마크 및 스웨덴의 아프리카 연구 동향 조사」. 『2010 연구전략센터 활동 보고』 (국립민족학박물관), 2011.
- (17) 「노상 상인과 난민으로부터 생각하는 ‘인간의 안전보장」 (아베 순야와의 대답). 『공연(公研)』 50(10)(공익산업연구조사회), 2012; 「교지와 도움을 돌리는 구조」. 『주간 독서인』, 2012. 3. 20.
- (18) 「탄자니아의 노상 상인에게 배워야 할 어리석은 지혜」. 『산케이신문』, 2012. 1. 23.

- (19) (서평) 「당신은 우장자」. 『월간 민파쿠』 34(9), pp. 34-35.
- (20) 「상반기의 수확으로부터」. 『주간 독서인』, 2012. 7. 27.
- (21) 엔도 다마키 저, 『도시를 사는 사람들: 방콕 도시 하층민의 리스크 대응』.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연구』 11(1), 2011, pp. 57-60.
- (22) 다나카 마사카즈 저, 『페티시즘 연구 I: 페티시즘론의 계보와 전망』. 『인문학보』 98, 2009, pp. 335-340.
- (23) 마쓰무라 게이이치로 저, 『소유와 분배의 인류학: 에티오피아 농촌 사회의 토지와 부를 둘러싼 역학』. 『JANES 뉴스레터』, 2009, p. 33.
- (24) 노모토 미사 저, 『아프리카 도시의 민족지: 카메룬의 '상인' 바미레케의 돈과 고향』.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연구』 5(1), 2007, pp. 94-98.
- (25) 코라 앤 프레슬리 저, 도미나가 지즈코 역, 『아프리카 여성사: 케냐 독립 투쟁과 키쿠유 사회』. 『암보스 문도스』 3(이사라쇼보), 1999.

9) 국내 이전 출간 도서



하루벌어 살아도 괜찮아
오가와 사야카 저 / 이지수 역 | 더난출판사

일본의 문화인류학자인 저자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사는 방식을 되묻는다. 탄자니아 도미니 사회의 내면을 담아내기 위해 직접 헌옷 행상을 하기도 하며 탄자니아 므완자 시에서 현지 상인의 장사 관행과 생계 활동을 조사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일은 일'이라는 말을 곧잘 하면서 직업의 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다. 어떤 일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일로 먹고살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른 사람의 벌이로 먹고 사는 방법은 경제 시스템으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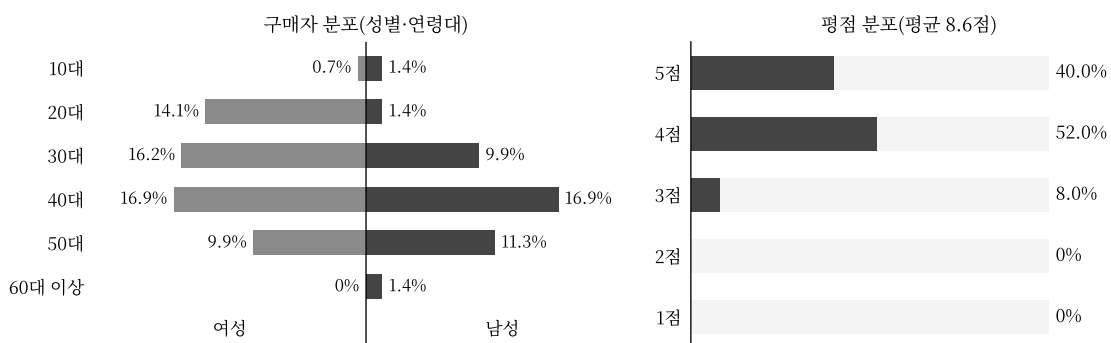
[도서 상세정보 >](#)

하루 벌어 살아도 괜찮아
오가와 사야카 저 / 이지수 역 | 더난출판사

일본의 문화인류학자인 저자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사는 방식을 되묻는다. 탄자니아 도미니 사회의 내면을 담아내기 위해 직접 헌옷 행상을 하기도 하며 탄자니아 므완자 시에서 현지 상인의 장사 관행과 생계 활동을 조사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일은 일'이라는 말을 곧잘 하면서 직업의 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다. 어떤 일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일로 먹고살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른 사람의 벌이로 먹고 사는 방법은 경제 시스템으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림 32] 채널에스 신간 소개 기사 「그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다」 (2017. 9. 6.)

- (1) 교보문고: 리뷰 18건, 평균 평점 7.4
- (2) 예스24: 리뷰 38건, 평균 평점 8.4, 사회 정치 TOP 100 2주
- (3) 알라딘: 리뷰 24건, 평균 평점 8.6, 세일즈포인트 179
- (4) 영풍문고 '주목받는 도서' 선정(매일경제·조선일보 선정 이슈 도서)



[그림 33] 알라딘 구매자 성별 분포

10) 이전 도서 관련 보도 자료 목록

- (1) 윤여진. 「[시선] 온전히 오늘날 사는 삶」. 『부산일보』, 2017. 9. 7.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907000259>
- (2) 최현미. 「탄자니아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여유와 가치」. 『문화일보』, 2017. 9. 8. <https://www.munhwa.com/article/11050346>
- (3) 「일본 인류학자가 탄자니아서 현 옷 팔며 발견한 새 자본주의」. 『연합뉴스』, 2017. 9. 6.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049400005?input=1195m>
- (4) 「그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다」 (신간 소개 기사). 『채널예스』, 2017. 9. 6.

3. 출판사 마케팅 활동

1) 갈라파고스 공식 X: 독자 서평단 모집, 표지 시안 공개 및 편집자 추천

출처: <https://x.com/galapagosbook/status/1932655268640543100>



[그림 34] 사전 서평단 모집 및 표지 시안 게시물

2) 갈라파고스 공식 X: 알라딘 ‘눈에 띄는 새 책’·‘MD의 선택’ 선정 홍보

출처: <https://x.com/galapagosbook/status/1936244636852666425>



[그림 35] 알라딘 ‘눈에 띄는 새 책’ 및 ‘MD의 선택’ 페이지

3) 갈라파고스 공식 인스타그램: 인문교양 대상 2위·팔로워 3천 명 기념 이벤트

출처: <https://www.instagram.com/p/DbFbgDvRPme/>



[그림 36] 갈라파고스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

4) 갈라파고스 공식 X: 미니 키링 이벤트

출처: <https://x.com/galapagosbook/status/1938103477408039208>



[그림 37] 갈라파고스 공식 X 이벤트 게시물

5) 갈라파고스 공식 X: 인스피아 소개 글 재확산

출처: <https://x.com/galapagosbook/status/1945667542196051990>

<표 23> 갈라파고스 마케팅 활동 연표

일자	활동
2025-06-11	독자 서평단 모집
2025-06-11	표지 시안 공개
2025-06-16	온라인 서점 등록 홍보
2025-06-19~20	신간 언론 노출

<표 24> 서점 큐레이션에 대응한 출판사 마케팅 활동

일자	서점 활동	출판사의 활용 방식
2025-06-21	알라딘 ‘눈에 띄는 새 책’ 및 인문 분야 ‘MD의 선택’	갈라파고스 공식 X 계정에서 선정 사실을 직접 홍보
2025-06-27	알라딘 ‘편집장의 선택’	알라딘 인문 MD 김경영의 추천평을 출판사 공식 X에서 인용
2025-07-01	교보문고 ‘오늘의 선택’ 및 ‘MD의 선택’	교보문고 상품 페이지에서 해당 큐레이션으로 노출
2025-06-3~4주	경향신문·문화일보·조선일보·한겨레 미디어 추천 도서	교보문고 상품 페이지에 주요 일간지 소개 도서로 표시
2026-08-31	교보문고 인문교양 대상 2위	교보문고 행사 페이지와 출판사 공식 X·인스타그램 등에서 성과를 재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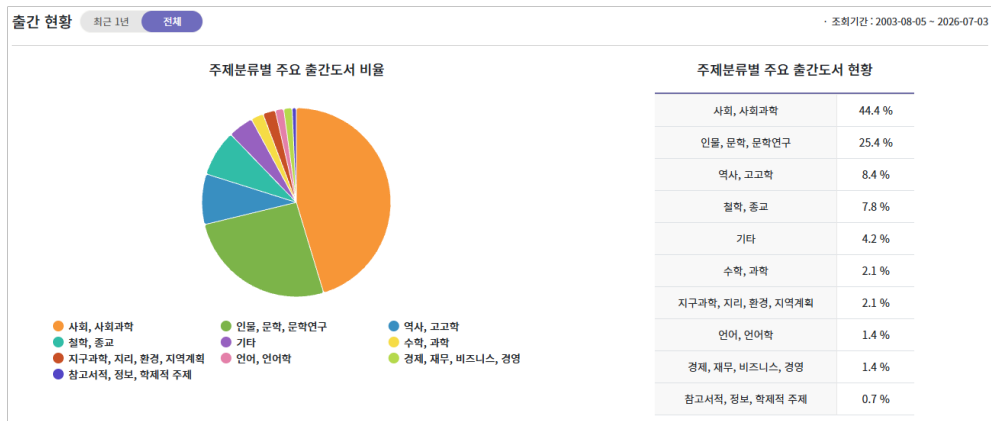
6) 갈라파고스, 2026 서울국제도서전 첫 참가 및 부스 운영

출판사 갈라파고스는 2026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A1900 구역에서 자사 부스를 운영하며 한정 굿즈와 절판된 구간을 판매했고, 이때 선정도서도 함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직접적인 판매로 이어진 흐름은 베스트셀러 순위 추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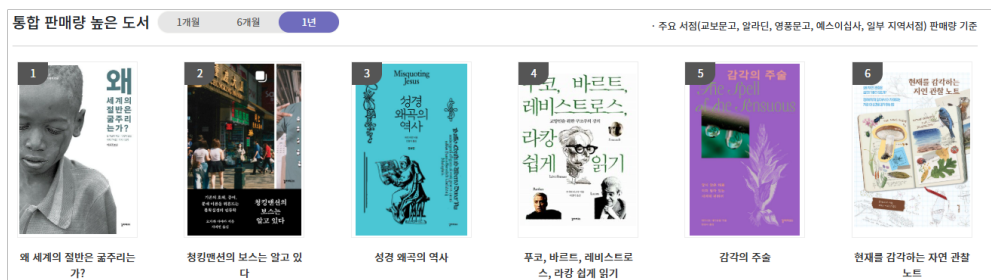
4. 출판사 정보

1) 출판사 출간 현황

출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https://bnk.kpipa.or.kr/home/v3/addition/adiPblshrInfoDetailView/seq_20210622152140548503



[그림 38] 갈라파고스 주제 분류별 주요 출간 도서 비율



[그림 39] 갈라파고스 통합 판매량 상위 도서 목록